

# 시즌 25% 마친 KIA... “이제는 반등해야”

13~15일 롯데·16~18일 두산전

지난해 5월 웃은 팀 가을도 웃어  
불펜 ‘불넷 남발’ 변수 차단 필요  
이번주 반전의 반등 보여줄지 ‘기대’



지난 3월 KBO리그  
가 개막한 뒤 모든 구단  
이 전체 경기의 25%  
(36경기)를 마쳤다. 지

난 시즌 25%가 지났던 5월 8일 리그 1위  
부터 5위까지의 구단 중 4개 구단(KIA  
타이거즈·삼성 라이온즈·SSG 랜더스·  
LG 트윈스)이 가을 야구에 진출했던 만  
큼 KIA 타이거즈가 올시즌도 가을 야구  
를 맛보려면 이번주 경기에서 반등을 이  
뤄야 한다.

KIA는 4월말 간판스타 김도영의 복귀  
와 함께 승승장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  
시 리그 1위였던 LG를 상대로 워닝 시리  
즈를 가져오기도 했고 지난주까지 진행됐  
던 지옥의 9연전에서 키움을 상대로 워  
닝 시리즈를 조기 확정짓기도 했다.

하지만 키움 3연전 중 마지막 경기에서  
보여준 불안한 경기력이 SSG와의 더블  
헤더에서도 이어졌다. 불펜은 무너졌으며  
타선은 고요했고 수비는 실책을 연발했



조상우

전상현

최지민

다. 이대로면 ‘디펜딩 챔피언’ 답지 않게  
‘꼴찌’ 추락도 가능하다.

KIA로서는 현재의 부진을 끊고 다시  
상승세를 타기 위해 불펜의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 특히 현재 타선이 전체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 불펜이 버텨줘야 경기를  
승리로 가져올 수 있다.

앞서 지난달 필승조 각도규가 부상으로  
시즌아웃된 이후 전상현, 최지민, 조상우  
가 KIA의 필승조로 활약하고 있고 정해

영이 마무리를 맡고 있다.

시즌초 부진을 겪었던 전상현은 지난달  
15일 기준 평균자책 11.57에서 지난 7일  
4.15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최근 3경기  
에서 모두 실점을 허용하면서 12일 기준  
5.87까지 떨어졌다.

지난달 21일 평균자책 1.69로 KIA의  
민을맨으로 불리는 조상우도 12일 3.71  
로 하락했다. 특히 최지민은 올시즌 14이  
닝동안 삼진(12개)보다 더 많은 16개의

불넷을 기록하며 가장 불안한 모습을 보  
이고 있다.

KIA는 12일 기준 17승 21패·승률  
0.447로 8위로 떨어져 있다. 지난주와 비  
교해 두 단계 하락했을 뿐 아니라 9위 두  
산과 승차가 고작 한 경기밖에 나지 않아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주  
롯데 자이언츠와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반전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면 최하위권까  
지 추락할 수도 있다.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한화	40	27	13	0	0.675	0.0
2	LG	40	26	14	0	0.650	1.0
3	롯데	42	24	16	2	0.600	3.0
4	NC	36	17	18	1	0.486	7.5
5	삼성	41	19	21	1	0.475	8.0
6	KT	41	18	20	3	0.474	8.0
7	SSG	39	18	20	1	0.474	8.0
8	KIA	38	17	21	0	0.447	9.0
9	두산	40	16	22	2	0.421	10.0
10	키움	43	13	30	0	0.302	15.5

우선 연패를 끊고 분위기를 바꾸는 것  
이 급선무다. KIA는 13일부터 롯데와의  
홈 3연전을 치른다. 롯데는 그동안의 모  
습과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팀  
타율 1위(0.285)로 화끈한 공격력을 바  
탕으로 많은 승수를 챙기고 있는 롯데에  
는 박세웅과 터커 데이비스가 공격적인  
투구를 선보이고 정현수, 김강현, 김원중  
등이 뒷문을 걸어 잠근다. 다만 황성빈,  
전민재, 찰리 반즈 등 연이은 부상으로 경  
기를 이탈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올시즌 롯데와 두산과의 상대에서 각각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 KIA가 이번주  
반전의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지 기대된  
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 광주시청 이재성, 남자 계주 400m 이틀 연속 한국 新

광저우 세계릴레이 패자부활전서  
38초51로 전날 예선 38초56 경신  
한국, 세계선수권 출전권은 놓쳐

광주광역시청 육상팀 이재성이 이틀 연  
속 남자 육상 400m 계주 한국 신기록을  
새로 썼다.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대표팀은 지  
난 11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2025 세계  
육상릴레이선수권 남자 400m 계주 패자  
부활전 1조에서 서민준(서천군청), 나마  
디 조엘진(예천군청), 이재성(광주광역시  
청), 이준혁(국군체육부대) 순으로 달  
려 38초51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는 전날인 10일 예선에서 서민준·나

마디 조엘진·이재성·고승환(광주광역시  
청) 순으로 달려 새로 작성한 한국 기록  
38초56을 0.05초 당긴 한국 신기록이다.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은 이틀 연속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웠지만, 올해 9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5 세계선수권  
출전권은 따내지 못했다.

이번 광저우 릴레이 대회에는 남자 400  
m 계주 세계선수권 출전권이 14장 걸렸  
다.

10일 예선에서 각 조 1, 2위에 오른 8개  
팀(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미국, 캐나  
다, 이탈리아, 영국, 독일, 폴란드)은 이  
번 대회 결선에 진출하며, 도쿄 세계선수  
권 출전도 확정했다.

예선 탈락한 18개 팀은 11일 3개 조로

나뉘 패자부활전을 치렀고, 각 조 1, 2위  
총 6개국(프랑스, 가나, 벨기에, 케냐, 중  
국, 호주)이 도쿄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국은 패자부활전 3조에서 프랑스  
(38초31), 가나(38초32)에 이은 3위를  
차지해 세계선수권 출전권 확보에 실패했  
다.

도쿄 세계선수권 남자 400m 계주에는  
16개국이 출전한다. 남은 2장의 출전권은  
광저우 대회 상위 14개 팀을 제외한 국가  
중 2024년 2월 26~2025년 8월 24일 사  
이 기록이 좋은 2개 팀에게 주어진다.

이번 대회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37초61로 우승했  
다. 미국은 37초66으로 2위, 캐나다는 38  
초11로 3위에 올랐다. 최동환 기자



11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2025 세계육상릴레이선수권 남자 400m 계주 패자부활전 1조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 이재성(오른쪽·광주광역시청)이 한국 신기록을 합작한 이준혁(국군체육부대)과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 도전하는 장애인 체육 꿈나무를 응원합니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오늘부터 4일간 경남 일원서  
광주 123명·전남 265명 출전

광주와 전남지역 장애학생 선수들이 전  
국 무대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  
낸다.

장애인체육 미래의 주역들이 꿈을 펼치  
는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경  
남과 함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구  
호 아래 13~16일 나흘간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역  
대 최다인 4165명(선수 1926명·임원 및  
관계자 2239명)이 17개 종목에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광주 선수단은 총 123명(선수 76명, 감  
독·코치 23명, 임원 및 관계자 24명)이 출  
전해 육상 등 11개 종목에서 메달 46개  
(금메달 8개, 은메달 20개, 동메달 18개)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광주광역시 선수단이 지난 8일 광주광역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전남 선수단은 10개 종목에 265명(선  
수 147, 감독·코치 73·임원 및 보조자 45  
명)을 파견한다. 그동안 전남선수단은 순  
천선혜학교·여수여명학교·목포인성학교  
·함평영화학교 등 9개 특수학교와 가사문  
학초·고흥도화교 등 30개 학교의 특수학  
급에서 학교생활 틈틈이 실력을 키워 온  
장애학생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펼치겠다

는 각오다.  
특히 올해는 여수정보과학고 농구팀이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처음으로 출전  
해 값진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이번 학생체전 개최식은 13일 오후 3시  
30분 김해실내체육관에서 ‘꿈꾸는 우리,  
우주로 향한 희망의 발걸음’이라는 주제  
로 개최된다. 최동환 기자

## 광주교통공사 유도 김민주, 첫 그랜드슬램 제패

여자 유도 중량급 기대주 김민주(광주  
교통공사·세계 22위·사진)가 생애 첫 그  
랜드슬램 ‘금빛 매치기’에 성공했다.

김민주는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국제유도연맹(IJF)  
카자흐스탄 바리시 그랜드슬램 2025 여  
자 78kg급 결선에서 일본의 이즈미 마오  
(세계 59위)를 업어치기 유효로 제압하  
고 우승했다.

김민주는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2회전서 자담바 우랑구(몽골)를 업어  
치기 한판승으로, 8강서 텔시두 엘  
리사벳(그리스)에 반칙승(지도 3  
개)으로, 준결승서 프라이타  
스 배아트리스(브라질)를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연파하고 결선에 올  
랐다.  
김민주는 결승  
서 이즈미 마오를

상대로 경기 종료 2분 10여초를 남기고  
오른손 업어치기를 시도해 유효를 따냈  
다. 이후 이즈미의 파상공세를 악착같이  
버텼고, 경기 종료 38초를 남기고 발목 받  
치기로 유효를 내렸지만 심판의 무효 정  
정 판정으로 승리를 안았다.

김민주는 최근 출전하는 국제대회에서  
입상 성적을 내며 6월 세계유도선수권대  
회에서도 메달 획득이 기대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열린 IJF 도쿄 그랜  
드슬램 준결승에서 2020 도쿄 올림  
픽과 2018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일본의 하마다 쇼  
리를 꺾고 결선에 진출해 은메달  
을 땀다. 지난 4월 태국 방콕  
MCC홀에서 열린 2025 아  
시아 유도선수권대회에  
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  
었다. 최동환 기자

